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알나리깎나리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알나리깎나리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알나리깎나리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알나리깎나리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아이들이 남을 놀릴 때 하는 말.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알나리깎나리		
얼레얼레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아이들이 남을 놀릴 때 하는 말.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11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알나리깎나리'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아이들이 남을 놀릴 때 하는 말.

알나리깎나리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알나리깎나리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알나리깎나리 사전 표기 요약	—	—	—	—	—	●→
얼레얼레 문헌 수록 표기	—	—	—	—	—	●→
알루리깎루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알누리깎누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얼레꼴레 문헌 수록 표기	—	—	—	—	—	●→
얼레꼴라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얼레꼴라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얼레꼴레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얼라꼴라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알나리깎나리
20세기현재
- 얼레얼레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9종

얼레얼레, 알루리깎루리, 알누리깎누리, 알나리깎나리, 얼레꼴레, 얼레꼴라리, 얼레꼴라리, 얼레꼴레리, 얼라꼴라리

↳ 알나리깎나리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알나리깎나리’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알나리깎나리’는 ‘알나리’ 뒤에 운율을 맞추기 위해 ‘깎나리’를 덧붙인 것이다. ‘알나리’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

‘알나리깎나리’ 외에도 ‘알누리깎누리’, ‘알루리깎루리’, ‘얼레리꼴레리’, ‘얼레얼레’, ‘얼레꼴레’, ‘얼레꼴라리’, ‘얼레꼴라리’, ‘얼레꼴레리’, ‘얼라꼴라리’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 표기와 소리의 특징

‘알누리깎누리’는 ‘알나리깎나리’에서 둘째 음절과 다섯째 음절의 모음 ‘ㅏ’가 ‘ㅜ’로 바뀐 것이고, ‘알루리깎루리’는 앞 음절 종성 ‘ㄹ’에 의해 뒤 음절 초성 ‘ㄴ’이 ‘ㄹ’로 바뀐 것을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얼레리꼴레리’ 역시 ‘알나리깎나리’로부터 둘째 음절과 다섯째 음절의 모음이 ‘ㅏ’에서 ‘ㅓ’로 바뀐 것이다.

‘얼레꼴라리’, ‘얼레꼴라리’, ‘얼레꼴레리’, ‘얼라꼴라리’ 등과 같이 앞 요소의 ‘리’가 실현되지 않은 형태도 나타나고, ‘얼레꼴레’처럼 앞 요소와 뒤 요소의 ‘리’가 모두 실현되지 않은 형태도 나타난다. ‘얼레’를 두 번 반복한 ‘얼레얼레’와 같은 형태도 나타난다.



문헌 속의 알나리깁나리

전체 용례 11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열레열레, 알루리깁루리, 알누리깁누리 외 6종 용례 1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열레열레, 알루리깁루리, 알누리깁누리, 알나리깁나리, 열레꼰레, 열레꼰라리, 열레꼰라리, 열레꼰레리, 열라꼰라리

출처 1930 동아일보 9월 13일 5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열레열레 웃음고나 그제 무어야 꼬꼬닭게 절하다니 소문내 불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0 동아일보 9월 27일 5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알루리깁루리 고기 떼우고 열레야 덜레야 울고지구요.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40 조광 제53호

용례 03

66 문헌 용례

알누리깁누리, 우리 쉼이 이제 웃을내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7 큰사전

용례 04

66 문헌 용례

알나리깁나리.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76 경향신문 4월17일 4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나를 한번 잡아보렴 얼레끌레 얼레끌레 술래는 심통이 풍선처럼 터졌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91 동아일보 6월 7일 29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내 목을 벌레가 물었다고 양락이 아버지가 약을 발라주는 순간에 경애 어머니가 「얼레꼴라리」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91 경향신문 7월14일 27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하늘에 뜬 총총한 잔별들이 얼레꼴라리 녁뵈 양반이 오토바이 끌고 녁뵈댁 마중나가네 얼레꼴라리 놀려대며 몰려다니는 것 같아서.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93 조선일보 11월16일19면

용례 08

66 문헌 용례

얼레끌레 놀리는 일, 치마 들추기 등 친구들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한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96 한겨레 2월 24일 11면

용례 09

66 문헌 용례

왜 그랬지? 그러고도 나를 흥볼 수 있는 거니? 얼레꼴레리. 얼레꼴레리!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그는 학창 시절의 에피소드를 들려 주고 속칭 「얼레리꼴레리 춤」을 선사한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얼라꼴라리, 우물가에 가지 말어. 봉어새끼 놀라니께.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알나리꼴나리에 관한 주석

‘알나리꼴나리’의 어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먼저, 나이 어리고 키 작은 사람이 벼슬을 했을 때 농담 삼아 ‘아이 나리’라고 부르던 말이 ‘알나리’로 바뀌고 여기에 운율을 맞추기 위해 ‘꼴나리’를 덧붙여 ‘알나리꼴나리’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알나리꼴나리’가 어린아이들이 남을 놀릴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점 때문에 이러한 어원설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알나리’의 ‘알-’을 작은을 뜻하는 접두사로 보아 ‘알나리’를 ‘나이 어리고 키가 작은 나리’로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알바가지’, ‘알요강’, ‘알항아리’ 등에서는 접두사 ‘알-’이 작은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만, 이때의 접두사 ‘알-’은 대개 사물과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람을 뜻하는 ‘나리’ 앞에 접두사 ‘알-’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알나리꼴나리’의 어원을 감탄사와 관련시켜 보기도 한다. 이상한 느낌이 들 때 사용하는 감탄사 ‘알라’, ‘얼레’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실제로 20세기 문헌에서 ‘알라리’와 ‘알누리’가 ‘알라’, ‘얼레’와 같은 의미의 감탄사로 사용된 예가 보인다. 이 뒤에 운율을 맞추기 위해 ‘꼴나리’ 등을 덧붙여 남을 놀릴 때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알나리꼴나리의 보충 설명

‘알나리꼴나리’의 ‘알나리’는 옛 민요의 후렴구 ‘얼러리 상사디아’에 쓰인 ‘얼러리’와 어형이 유사하다. 또한 고려가요 청산별곡의 후렴구인 ‘얄리 얄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의 ‘알라리’와도 어형이 유사하다. 이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면 ‘알나리꼴나리’는 예부터 감탄사 또는 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하던 말인 ‘알나리’에 운율을 맞추기 위해 ‘꼴나리’를 결합한 구성이 남을 놀릴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알나리꼴나리’보다는 ‘얼레꼴레’나 ‘얼레리꼴레리’와 같은 어형을 주로 사용한다. 이 말은 성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그렇다 보니 동화책 제목이나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식집 이름 등에 ‘얼레꼴레’나 ‘얼레리꼴레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이러한 말을 할 때는 대개 특유한 리듬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 사귀는 것을 아이들이 놀릴 때 ○○는 ○○를 좋아하는대요, 좋아하는대요.와 같이 리듬을 살려 노래처럼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리듬을 이용하여 전문 작곡가가 ‘얼레꼴레’ 또는 ‘얼레리꼴레리’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어

대중적으로 보급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한 방송인에 의해 ‘얼레리꼴레리’가 유행어가 되기도 했으며, 대중적으로 친숙한 리듬이 광고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알나리깁나리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이동석 2015 알송달송한 알나리깁나리 《말과글》 145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알나리깁나리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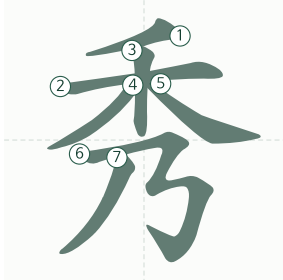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秀

뜻·음 빼어날 수
총 7획 · 부수 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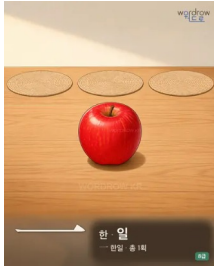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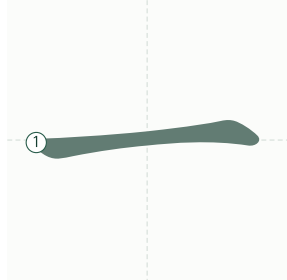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秀/

一

뜻·음 한 일
총 1획 · 부수 一





hanja.wordrow.kr/한자/一/